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선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7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7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5-7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7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신교, 동유음,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위백규, 사자산 동유기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어느새 하다보니 임팩트 원도 막바지를 향해 다가갑니다. 처음에 제 모의고사도 제작하고, 각종 사설 해설 강의를 찍게 되었을 때, 이걸 언제 다 하나 싶고, 징징대면서 했는데 어쩌다보니 거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벌써 할 말은 아닌데 올해는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으나, 열심히는 산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았겠으나,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은 없었기에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아예 후회가 남지 않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난 할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홀가분한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수필복합입니다. 상상에서 선별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정확히 오늘의 주제는 지문 독해보다 문제 푸는 사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정확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부 일치를 시험장에서 틀리는 이유. 간단하죠. 사실확인을 하다 말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줘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문지르는 거죠. 그걸 난이도 별로 보여 주기가 너무 좋은 세트라서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해설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25번, 26번, 27번이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가)는 비연계 고전시가입니다. 단 우리는 '신교'라는 사람은 알죠. 올해 연계인 백석정별곡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좀 껄끄러우면, 〈보기〉 읽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저는 고전시가는 잘 안 봅니다.) (나)는 연계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아들이 부여 현감 되어서, 행복하신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곳까지 가는 행차, 가면서 겪는 일들, 도착해서의 일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는 선현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여 선현에 대한 존경심과 그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이황 학통의 계승자로서의 자부심을 보여 준다. 한편 (나)는 부여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들의 여정에 동행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인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여성으로서 규방을 벗어난 데 따른 감회를 드러낸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 참고하면 (가)를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지긴 하겠네요.

(가)

조령(鳥嶺) 넘은 후에 주왕산 산수(山水) 좋다고 하거늘
거문고와 술 한 병으로 시냇가에 앉아 노니
아마도 지난번의 공명(功名)이 꿈인 듯하여라 〈제1수〉

- 네. 자연친화 각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산(陶山)* 귀(貴)한 곳을 구경하려 원(願)이러니
말 한 필과 시중드는 아이만으로 오늘에야 찾아오니
아마도 선현(先賢) 유적(遺跡)이 어제인 듯하여라 〈제3수〉

'도산' 보자마자 선현과 관련된 장소구나. 바로 나오죠. '이황'이 떠올라주면 됩니다. 도산십이곡 아시죠? 평소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찾아왔다는 거고요. 선현이 남긴 흔적이 어제인 것처럼 그대로라며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암(聾巖)*에 몸을 내려 애일당(愛日堂) 앉아 보니
선현 충효(忠孝)를 본 듯이 알겠도다
하물며 화상(畫像)*을 우러러보니 더욱 뚜렷하여라 〈제4수〉

저는 '농암'이 이현보의 호인지 아니까요. 사실 이것도 바로 선현 떠올라주면 되죠. 애일당에 앉아보니, 선현의 충효를 알겠대요. 심지어 초상까지 보니 그 충효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 신교, 「동유음」 -

* 도산 : 이황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도산 서원을 의미함.
* 농암 : 이현보의 호인 농암을 새긴 바위를 가리킴.
* 화상 :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나)
오늘날 이 기쁜 소식 그 더욱 뜻밖이도다
비록 작은 읍이지만 너에게는 고향이라
착하도다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
좋은 약초 얻어 내서 병든 어버이 쾌차하니
화창한 바람은 집 안에 가득하고 시절은 삼월이라
친척은 뜰에 가득하고 철 맞춰 내리는 비 촉촉하여
이화도 향기롭다 바람이 어떨지 의논하며
성은이 거듭되니 이 소임을 피할쏘냐

아들이 부여 현감으로 부임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요즘으로 따지면 승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아들이 기특하죠. 심지어 약초를 얻어 내어 어버이를 쾌차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임금께서 주신 소임을 지키기 위해 부임지로 떠나야겠지요.

산뜻한 여름 초하룻날 영양으로 행차를 떠나니
친척들이 기뻐하고 좋은 벗들이 축하하니
범 같은 허다한 하졸 조수같이 밀려들어
기품 있는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볼 만하다
그때 듣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영양으로 떠납니다. 친척들이 기뻐하고 좋은 벗들이 축하합니다. 행차 행렬이 엄청납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십리에 걸쳐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부임지로 출발합니다.

(중략)

층층 바위 맑은 계곡 몇 곳이나 지나가니

주렴을 잠깐 들고 멀리 가까이 살펴보니
산천도 수려하고 지세도 트였도다
사십 년 막혀 있던 가슴 이제야 트이는도다
함창 땅 태봉 주막 음식도 정결하다
상주는 큰 관아라 사람 물산도 번화하다
보은은 협곡 속이라 속리산 안 줄기로다
옥천을 다시 보니 너럭바위 더욱 좋도다

규방에 있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니까 좋으신가 봅니다. 규방을 벗어난 데에 대한 감회를 보여줍니다. 사십 년 막혀 있던 가슴이 트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정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상주, 보은, 옥천을 지나갑니다.

삼십 년 떠나 있던 동생 옥성에 와 만나 보니
힘든 일에 고생 많아 맑고 수려한 그 얼굴이 반백이 다 되었네
손잡고 눈물 흘리니 마음속 쌓인 정 가슴을 덮는도다
앞길이 한참 남았으니 쌓인 얘기 다하겠는가 아쉬운 마음 그지없다

정말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정 때문에 다 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

(다) 수필도 바로 끝내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수필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수필은 아마 인식이 확장되는 부류의 수필인 듯합니다.

(다)
내가 사는 장흥에는 진산(鎭山)이 둘 있는데 천관산과 사자산이다. 천관산은 예로부터 지역 내 뛰어난 풍경으로 이름나서 유람하는 사람들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아 모두가 사랑할 만하다고 여겼지만, 유독 사자산만은 명승지라는 명성이 없을뿐더러 유람하는 이들도 없었다. 나 홀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유람하려 했으나 오래도록 하지 못했다.

천관산과 사자산 중 천관산은 인지도가 높습니다. 사자산은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네요. 필자는 이유가 궁금했나봅니다. 유람하러 갑니다.

(중략)

동쪽 고개를 따라 이른바 병풍암이라는 곳을 돌아 내려오니, 기이하고 그윽하며 상쾌한 기운이 또 하나의 절경을 이루었다. 의상암 뒤에 또다시 이러한 경치를 보게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금상첨화 같은 감실(龕室)의 뛰어난 풍경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경치 좋은 곳 가운데 가장 그윽하고 깊어 오르내릴 때 꼼꼼히 찾아보면 필시 신령스러운 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길이 막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 내려오는 길에 세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 보았으니, 비로소 옛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자산 의외로 좋습니다. 경치가 좋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더 좋은 경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자명한데, 날이 저물고 길이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옛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이러니까 덜 유명하지!" 이런 느낌이겠지요.

사자산에는 기암괴석이 벽처럼 겹겹이 지탱하면서 반듯하게 솟고 비스듬히 서 있다. 그 가운데 탁 갈라진 것은 천문(天門)이 되고 반듯이 선 것은 돌기둥이 되며, 줄지어 늘어선 것은 여러 부처가 되고 고개를 수그린 것은 동자가 되며, 옆으로 가로지른 것은 구름다리가 되고 그중 빼어난 것은 연꽃 모양이 된 바위들을 이루 다 셀 수 없는데, 다만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안목으로 기이한 경관을 칭송하지 않은 것이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공손교(公孫僑)는 당대 으뜸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공자(孔子)가 진실로 요순보다 현명한 줄은 몰라봤다는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산수가 종자기(鍾子期)처럼 제 가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겠다.

슬슬 시동거네요. 사자산에 정말 좋은 풍경이 많은데, 이름이 없기에 기이한 경관을 칭송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강사들을 떠올려보세요. 인기도 많고... 하지만 '이승모'를 보세요. 인지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해하셨죠? 사자산도 좋다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아, 세상에서 만물에 대해 평론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견을 갖기 때문에 공정한 안목도 없고 공인된 평가도 없다. 나는 천관산 사람이니 어찌 천관산이 지역 내 최고의 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는가. 만약 촉(蜀)나라 안에서 제갈공명*을 보고 우리 주유*보다 못하다고 평가 절하한다면, 이 어찌 통달한 선비의 말이겠는가. 이제야 의상암과 제암은 천관산에는 없는 것이며 사자산만이 품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주제 떴습니다. 결국 사자산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편견, 사견이 공정한 평가를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편견이나 사견에서 벗어나 공정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위백규, 「사자산 동유기」 -

22.

낚일만한 선지가 하나 정도 있긴 합니다만, 답을 고르기는 수월합니다.

① (가)는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낚이기 딱 좋습니다. 이미 (가)를 본 후, '선현'이 중요하게 등장했었다는 것이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을 호명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② (나)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답이죠. 그냥 산뜻한 여름 초하룻날이라는 표현 보자마자 응. 답. 하시면 됩니다. 굳이 고조된 정서까지는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계절적 배경이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③ (다)는 열거의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와 (다)는 모두, 영탄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한 덩어리로 쳐 버리면 됩니다. (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 아니고요, (가)에 세태 비판이 어딨습니까. (나), (다) 모두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련된 작품이 아닙니다.

23.

학생에 따라서 살짝 답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발췌독을 할 때도 앞뒤 맥락 잘 따져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들이 너무 선명하게 틀려서 답을 못 고를리는 없습니다. 답 선지만 따져보겠습니다.

③ 〈제4수〉의 초장에 제시된 공간적 배경은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 이게 '깨달음'이라는 워딩이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문 돌아가서 확인합시다.

> 농암(聾巖)*에 몸을 내려 애일당(愛日堂) 앉아 보니
> 선현 충효(忠孝)를 본 듯이 알겠도다
> 하물며 화상(畫像)*을 우러러보니 더욱 뚜렷하여라

선현 충효를 본 듯이 알겠도다 = 깨달음. 이렇게 의미를 연결해달라는 건데, 뭐 틀리다고 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슨 깨달음이지? 이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뚜렷합니다. 애일당이라는 곳에서 선현의 초상까지 보며 선현의 '충효'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있지요. '깨달음' 크게 무리 없습니다.

24.

결국 답이 선명하게 한 번에 찍혔냐, 아니면 좀 절었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답 선지가 어렵지는 않으나,이 문제 답이 한 번에 안 보였다면,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③ (나)에서 '그때 듣던 소리'가 '반갑기 그지없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아들의 부임을 환영하는 부여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긍지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바로 지문 돌아가서 근거를 명확히 잡아보겠습니다.

산뜻한 여름 초하룻날 영양으로 행차를 떠나니
친척들이 기뻐하고 좋은 벗들이 축하하니
범 같은 허다한 하졸 조수같이 밀려들어
기품 있는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볼 만하다
그때 듣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엥? 선생님 영양으로 떠나는데요. 그러니까 부임을 환영하는 부여 백성들일 수는 없죠. 아직 부여 안 갔으니까요.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가 부여인지 이제 출발하는 건지 선명하지 않아요.'라고 하실까봐... 물론 안 그러시리라 믿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해드릴게요. 즉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면 됩니다.

삼십 년 떠나 있던 동생 옥성에 와 만나 보니
힘든 일에 고생 많아 맑고 수려한 그 얼굴이 반백이 다 되었네
손잡고 눈물 흘리니 마음속 쌓인 정 가슴을 덮는도다
앞길이 한참 남았으니 쌓인 얘기 다하겠는가 아쉬운 마음 그지없다

네. 앞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이 맥락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부여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25.

첫 번째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지문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은 '세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 보는 행위를 통해 ~~'옛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세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보는 행위는 분명히 아쉬움을 드러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무엇때문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동쪽 고개를 따라 이른바 병풍암이라는 곳을 돌아 내려오니, 기이하고 그윽하며 상쾌한 기운이 또 하나의 절경을 이루었다. 의상암 뒤에 또다시 이러한 경치를 보게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금상첨화 같은 감실(龕室)의 뛰어난 풍경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경치 좋은 곳 가운데 가장 그윽하고 깊어 오르내릴 때 꼼꼼히 찾아보면 필시 신령스러운 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길이 막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 내려오는 길에 세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 보았으니, 비로소 옛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옛사람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경관이 있을 것 같은데, 날이 저물고, 길이 막혀서 못 가보는 게 아쉬운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26.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⑤ (나)에서는 '마음속 쌓인 정'을 다 풀어내지 못한 데 따른 안타까움이, (다)에서는 ~~'병풍암'을 내려오며 마주하게 될 풍경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감이 드러난다.~~

-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급하다고 뭉개면 선명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 동쪽 고개를 따라 이른바 병풍암이라는 곳을 돌아 내려오니, 기이하고 그윽하며 상쾌한 기운이 또 하나의 절경을 이루었다. 의상암 뒤에 또다시 이러한 경치를 보게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금상첨화 같은 감실(龕室)의 뛰어난 풍경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경치 좋은 곳 가운데 가장 그윽하고 깊어 오르내릴 때 꼼꼼히 찾아보면 필시 신령스러운 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길이 막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 내려오는 길에 세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 보았으니, 비로소 옛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병풍암을 내려오면서 의상암 뒤에 또다시 이런 경치를 보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병풍암을 내려오며 마주하게 될 풍경에 대한 기대감이 맞으려면 원래 이런 좋은 풍경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니,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7.

답선지를 정말 너무 잘 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답의 선명도라는 표현은 이런 문제에 쓰이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선지가 선명하게 안 보일 수 있고, 설령 답은 골랐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 원이라는 것 자체의 이유를 이 문제에서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⑤ '제갈공명'을 '우리 주유보다 못하다고 평가 절하'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에서,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도 이도관지를 구현하지 못한 사례를 알 수 있군.

- 정말 그럴듯하죠. 사실 선지를 그냥 읽으면 너무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필을 읽고 이 선지를 판단하는 거고, 이미 마지막 문단이 중요하다는 것도 머리에 강하게 각인 됐을 거고. 심지어 이도관지의 뜻이 '편견이나 세간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 자체의 본질과 이치에 따라 사물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라고 했으니, '제갈공명'을 '우리 주유보다 못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상황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도 맥락상 이도관지가 구현되지 못한 사례로 보일 수 있죠. 너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필의 주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즉 수필 독해력이 뛰어나냐. 아니면 돌아가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 즉 선지든, 발췌독 시 지문이든 뭉개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필 독해력

수필을 잘 읽은 사람은 사실 선지를 보자마자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도'라는 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편견과 사견에 사로잡혀서 고유한 가치를 몰라보는 걸 비판하는 거죠. 즉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네! 이걸 까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안 보려고 하니 그 가치가 안 보이는 거다! 이걸 까는 겁니다.

2) 선지 판단 능력(발췌독)

아, 세상에서 만물에 대해 평론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견을 갖기 때문에 공정한 안목도 없고 공인된 평가도 없다. 나는 천관산 사람이니 어찌 천관산이 지역 내 최고의 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는가. 만약 촉(蜀)나라 안에서 제갈공명*을 보고 우리 주유*보다 못하다고 평가 절하한다면, 이 어찌 통달한 선비의 말이겠는가. 이제야 의상암과 제암은 천관산에는 없는 것이며 사자산만이 품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항상 선지부터 잘 읽어야 합니다.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도'라는 말이 일단 같이 읽혀야 합니다. 선지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확인했더니, 사람들은 공정한 안목도 없고, 공인된 평가도 없다고 합니다. 즉 애초에 고유한 가치를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풀어야 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상 이승모 선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